

# 유틸리티

## 12/20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예정

### 비중확대 (유지)

허민호

☎ 02) 3772-2183

✉ hiroo79@shinhan.com

- ◆ 12월 20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예정
- ◆ 재생에너지 경제성 향상, 송/배전 접속 인프라 확충 계획
- ◆ 태양광/풍력, ESS/전력기기/ICT 업체 수혜, 중소형주 > 대형주 전망

### 12월 20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예정

언론보도를 취합하면, 30년 태양광설비는 36.7GW(16년 대비 +32.2GW), 풍력설비는 17.7GW(+16.7GW), 발전량 비중은 태양광 7.1%, 풍력 6.5%로 확대가 예상된다. 민간 24.6GW, 공공기관 24.1GW의 신규 설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입지 규제 완화,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 도입, 해상 풍력 발전 개발이 기대된다. 30년까지 RPS 비율 28%(기존 23년 10%)로 상향, 폐기물(16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44%)은 제외, 목재펠릿 REC 가중치(현재 1.5) 하향 조정 예상된다.

### 재생에너지 경제성 향상, 송/배전 접속, 계통 안정화 인프라 확충 계획

재생에너지의 경제성 향상을 위해 풍력(육상 1, 해상 2), 태양광(0.7~1.5), 수력(1)의 REC 가중치 상향,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FIT(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등이 예상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용 송전선로/변전소, 계통안정화용 ESS를 구축할 계획이다. 태양광/풍력 연계 ESS의 높은 REC 가중치(17년 5배) 연장 등 재생에너지용 전력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 태양광/풍력, ESS/전력기기/ICT 업체 수혜, 중소형주 > 대형주 전망

중소형주 중심의 태양광/풍력, ESS/전력기기 업체의 수혜가 기대된다. 상장된 태양광 업체로는 에스에너지, 신성이엔지, 웅진에너지 등, 풍력 업체는 두산중공업, 씨에쓰윈드, 동국S&C, 유니슨, 태웅, SK디앤디 등, ESS/전력기기/ICT 업체는 삼성SDI, 효성, LS산전, 현대일렉트릭, 포스코ICT 등이 있다.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예상치

(GW, TWh, %)	2016			2030F			30F - 16 증감		
	발전 용량	발전량 비중	발전 비중	발전 용량	발전량 비중	발전 비중	발전 용량	발전량 비중	발전 비중
국가 (자가발전 포함)	-	561.8	-	-	657.7	-	-	95.9	-
신재생에너지	13.8	40.7	7.2	62.0	131.7	20.0	48.7	91.0	12.8
태양광	4.5	5.1	0.9	36.7	46.4	7.1	32.2	41.3	6.1
풍력	1.0	1.7	0.3	17.7	42.5	6.5	16.7	40.8	6.2
수력/해양/바이오	4.0	11.1	2.0	7.6	42.8	6.5	3.6	30.2	4.3
연료전지/IGCC	0.6	1.5	0.3						
폐기물	3.8	22.8	4.0	0.0	0.0		(3.8)	(22.8)	(4.0)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언론 보도 취합, 신한금융투자

## 유틸리티형 태양광/풍력 확대, 설비 증설 48.7GW 중 민간 24.6GW, 공공기관 24.1GW

12월 20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태양광과 풍력발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기타 재생에너지인 수력/해양/바이오, 신에너지(연료전지 등) 확대는 2018년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와 규제 완화 정책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국내 재생에너지는 2030년까지 분산발전원인 자가발전(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6%로 목표)보다는 유틸리티 성격의 사업을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총 신규 설비는 48.7GW 중 민간 24.6GW(자가용 시설 2.1GW 포함), 공공기관 24.1GW가 예상된다.

## 1) 2030년 RPS 비율 28%로 상승, 2) 폐기물 제외, 3) 목재 펠릿 REC 가중치 하향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기존 2023년까지 10%에서 2030년까지 28%로 확대된다. 2016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44%를 차지한 폐기물이 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된다. 6.6%를 차지하고 있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 증서) 바이오 혼소와 목재 펠릿의 가중치도 1과 1.5에서 하향된다. 발전공기업은 RPS 관련 구입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공격적으로 확대할 수 밖에 없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예상치

(GW, TWh, %)	2016			2030F			2030F - 2016 증감			비고
	발전 용량	발전량	발전량 비중	발전 용량	발전량	발전량 비중	발전 용량	발전량	발전량 비중	
국가(자가발전 포함)	-	561.8	-	-	657.7	-	-	95.9	-	총 신규 설비 48.7GW 중 민간 24.6GW(농가 태양광 15GW
신재생에너지	13.8	40.7	7.2	62.0	131.7	20.0	48.7	91.0	12.8	협동조합 7.5GW, 자가용 시설 2.1GW), 공공기관 24.1GW
태양광	4.5	5.1	0.9	36.7	46.4	7.1	32.2	41.3	6.1	(염해농지 10GW, 복합단지 1.5GW, 서해/남해 해상풍력 3GW 등)
풍력	1.0	1.7	0.3	17.7	42.5	6.5	16.7	40.8	6.2	태양광 이용률 14.4%, 풍력 이용률 27.5% 가정
수력/해양/바이오	4.0	11.1	2.0	7.6	42.8	6.5	3.6	30.2	4.3	16년 바이오 1.9GW, 수력 1.8GW, 해양 0.3GW, 연료전지 0.2GW
연료전지/IGCC	0.6	1.5	0.3							바이오/수력/해양/신에너지 비중: 16년 2.3% → 30년 6.5%
폐기물	3.8	22.8	4.0	0.0	0.0		(3.8)	(22.8)	(4.0)	2016년 폐기물 3.8GW 제외
사업용	11.2	26.8	4.8		114.6	17.4		87.8	12.7	
자가용	2.6	13.8	2.5		17.1	2.6		3.3	0.1	

자료: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언론보도 취합, 신한금융투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논의 사항

		논의사항
재생에너지 중심 확대	재생에너지 설비	태양광 36.7GW(신규 32.2GW), 풍력 17.7GW(신규 16.7GW)로 증설
	RPS(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비율	2023년 10% → 2030년 28%로 상향
	폐기물 에너지	재생에너지에서 폐기물 제외, 2016년 신재생에너지 중 폐기물 비중 44%
입지문제 해소	입지문제 해소	입지제도(염해농지, 댐/저수지 등 유휴부지) 개선, 영농복합사업 확대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 도입, 공공기관 10 대 중점 프로젝트
경제성 해소	REC 가중치 상향	바이오혼소, 목재펠릿의 REC 가중치 1과 1.5를 하향, 2016년 신재생에너지 중 목재펠릿 비중 6.6% 풍력(육상 1, 해상 2), 태양광(0.7~1.5), 수력(1)의 REC 가중치 상향
	FIT(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개인 사업자 30kW, 협동조합 100kW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20년간 수익 창출 보장
	그린 프라이싱 제도 도입	소비자(국내에서 초기에는 공공기관)가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기존 전기요금보다 비싼 가격에 구입하는 제도. 중장기적으로 민간으로 확대,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 창출의 근간으로 작용 기대
접속인프라 확충	송배전망	송전선로 적기 확충(선제적 투자 등), 신규 70kV 송전망, 신재생 접속전용 변전소(G-플랫폼) 구축
	태양광/풍력 연계 ESS	계통안정화(과도 및 전압안정도 개선, 주파수 조정)용 ESS 설치
		2017년 1년간 REC 가중치 5배 → 4.5배로 축소기간(구축시점부터 7년간) 연장

자료: 언론보도 종합, 신한금융투자

## 발전공기업 6개사, 2030년까지 총 신재생에너지 33GW, 45.5조원 투자 계획

발전공기업 6개사는 2030년까지 총 45.5조원을 투자해 33GW의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총 설비규모보다 큰 규모이다. 정확한 수치적 계산은 어렵지만, 발전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 국내 재생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량 8,966GW, 정부의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 목표 달성 가능

국내 재생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량은 8,966GW이다. 보급확산을 위한 비용 보조수단, 환경 규제 등을 고려한 시장 잠재량은 대폭 축소될 수 있다. 정부가 목표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구축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다만 발전비용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환경 파괴, 민원 문제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다음 정권 이전까지 재생에너지는 빠른 속도 증설될 전망이다.

## 한전발전회사 신재생에너지 투자계획

(GW, 십억원)	설비용량	투자계획금액	비고
한국중부발전	5.68	16,068	자체사업 2.08조원, SPC 출자 13.99조원, 2024년까지 태양광 1GW, 풍력 1GW 등
한국남부발전	5.18	7,834	자체 6.3조원, SPC 출자 1.8조원, 강릉 안인풍력(60MW), 제주 대정읍 해상풍력(100MW) 등
한국동남발전	5.76	6,916	자체 6.54조원, SPC 출자 0.38조원, 해상 풍력 1GW 등
한국동서발전	4.52	3,866	대용량 조력발전사업인 아산만 조력사업 추진 예정 등
한국서부발전	4.27	6,152	거제(23MW), 완도(150MW) 풍력발전, 태안 이원간척지에 신재생에너지파크 조성 예정
한수원	7.60	4,755	태양광 3.2GW 등
총계	33.01	45,531	

자료: 언론보도, 신한금융투자

## 재생에너지 잠재량의 정의

구분	내용
이론적 잠재량 (Theoretical Potential)	우리나라 전체에 부존하는 에너지 총량 (예: 태양 에너지의 경우 1년 간 국토 총 면적에 도달하는 일사량)
지리적 잠재량 (Geographical Potential)	에너지 활용을 위한 설비가 입지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잠재량 (예: 산지, 철도, 도로, 기타 설비제한 구역(문화재/환경 보호지역 등) 등 지리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지역을 제외한 잠재량)
기술적 잠재량 (Technical Potential)	현재의 기술수준(에너지 효율계수, 가동율, 에너지 손실요인 등을 고려)으로 산출될 수 있는 에너지 생산량 (예: 태양광 효율 16.0%, 태양열 효율 37.5%)
시장 잠재량 (Market Potential)	보급확산을 위한 비용 보조수단을 제외한 조건(완전경쟁시장환경)에서 적용가능한 잠재량 적용시점(현재 혹은 미래시점)에 대한 고려 필요(기술 경쟁성, 환경성, 타 용도 대체 등을 고려)

자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센터, 신한금융투자

## 국내 재생에너지 잠재량

구분	세부	설비용량(GW)			연간 발전량(TWh/년)			석유환산톤(10 <sup>3</sup> toe/년)		
		이론적	지리적	기술적	이론적	지리적	기술적	이론적	지리적	기술적
태양	-	97,459	24,178	7,451	132,362	32,839	10,123	11,383,147	2,824,128	870,436
풍력	육상	487	118	64	726	207	97	62,421	17,784	8,377
	해상	423	216	33	1,243	668	97	106,850	57,417	8,343
수력	-	36	19	15	313	164	53	26,875	14,141	4,525
바이오	-	237	11	9	1,705	80	64	407,395	19,121	15,368
지열	심부	9,308	연산중	30	81,534	연산중	221	7,010,648	연산중	18,990
	천부	29,078	13,913	1,298	20,736	9,921	925	1,782,956	853,054	79,551
폐기물	-	19	18	14	163	155	122	13,977	13,278	10,450
해양	조류	439	278	43	3,844	2,453	390	330,482	211,206	33,724
	조력	12	10	6	100	82	51	8,684	7,174	4,345
	해수 온도차 발전	451	339	3	3,976	2,994	24	342,000	257,523	2,001
합계		137,949	39,100	8,966	246,702	49,563	12,167	21,478,435	4,274,826	1,056,110

자료: 2016년 신재생에너지 백서, 신한금융투자

## 수직계열화 성공 및 국내 매출비중이 높은 중소형 태양광, 풍력 업체 수혜

글로벌 태양광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모듈 시장은 현재 공급과잉 상태이다. 수익성이 저조하다. 그러나 국내 유틸리티형 태양광 시장이 확대된다. 소재/부품 수직계열화를 통해 대규모 유틸리티형 EPC 시장 진출과 수익 창출이 가능해진다. 공공기관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글로벌 수준의 설비를 보유한 대형업체보다 중소 태양광업체의 수혜폭이 클 전망이다. 상장된 태양광 업체는 에스에너지, 신성이엔지, 웅진에너지 등이 있다.

글로벌 풍력 시장은 시장진입 장벽이 높다. 터빈은 지멘스, GE 등 글로벌 업체가 장악을 하고 있다. 다만 두산중공업은 국내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만큼 터빈 국산화의 수혜가 기대된다. 타워는 기술력 이외에도 운송비가 주요 경쟁력을 작용한다. 국내 공장을 보유한 동국S&C, 유니슨 등의 수혜폭이 가장 크다. 동국S&C, 유니슨은 풍력발전 개발/EPC 사업도 수행하므로 SK디앤디와 함께 국내 해상 풍력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 해외 타워 공장을 보유한 씨에스윈드와 단조부품 생산 및 잉곳 수직계열화 예상되는 태웅도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수혜주 (태양광/풍력)

	관련주	시가총액 (십억원)	사업영역	현황
태양광	한화케미칼	4,895	모듈/EPC	- 한화큐셀(자회사)의 셀/모듈 생산능력 4.15GW - 미국발 우려 존재하나 2018년 태양광 부문 증익(+87.2% YoY) 전망
	OCI	3,112	폴리실리콘	- 글로벌 3위 폴리실리콘 업체(M/S 12%) - 말련 도쿠야마 인수로 생산능력 확대(16년 5.2 → 18년 6.8만톤/년)
	웅진에너지	224	웨이퍼	- 17년 웨이퍼 생산 능력 1.5GW(+150% YoY)로 확대 예상 - 18년 웨이퍼 매출액 2,447억원(+193% YoY), 2,994억원(22% YoY) 예상
	신성이엔지	350	셀/모듈	- 단결정 셀 생산능력 600MW(일반 400MW, PERC 200MW) 보유, 국내 유틸리티형 EPC 사업 확대 기대 - PERC은 효율 21.7%로 기존 단결정 19.5%, 다결정 18% 대비 높음. 지붕형 태양광 확대시 판매 증가 예상
	에스에너지	106	모듈/EPC	- 16년 매출 비중은 태양광 모듈 48%, EPC 44%, 에스파워(지분 100%)를 통해 태양광 O&M 및 렌탈사업 영위 - 국내 태양광 EPC 매출, 프로젝트 오거나이징 확대 등으로 수익성 개선 기대
풍력	두산중공업	1,677	터빈	- 기존 발전사업은 정부의 탈원전/석탄으로 국내 성장성 부진, 해외 원전/석탄발전 확대 성공시 실적 안정화 가능 - 가스 및 풍력 터빈(3MW 자체개발, 210MW 공급, 5.5MW 기술 인수 등), ESS 등 신사업 진출
	유니슨	312	터빈/타워 생산 EPC/운영	- 터빈(2.3MW 기술 확보) 생산, 풍력발전 EPC, 운영사업 영위, 생산능력은 터빈 500MW, 타워 400세트 - 17년 풍력발전 공사 매출비중 85%, 국내 398MW(점유율 20%), 해외 43MW 풍력발전단지 시공 경험 보유
	씨에스윈드	464	타워	- 베트남, 말레이시아, 중국, 캐나다, 영국 공장(총 21만톤) 구축, 다수의 글로벌 풍력 터빈업체를 고객으로 보유 - 글로벌 풍력발전 시장 확대 수혜, 3Q17 누계 지역별 매출비중은 미주 41%, 아시아 37%, 유럽 22%
	동국S&C	324	타워/EPC	- 국내 타워 생산능력 8만톤, 미국 서부/남부, 일본 지역에서 타워 매출의 대부분 발생. 향후 국내 매출 확대 기대 - 3Q17 누계 매출비중은 풍력타워 36%, 풍력건설 50%, 영업이익비중은 풍력타워 74%, 풍력건설 17%
	태웅	376	단조부품/잉곳	- 단조부품, 잉곳 생산 수직계열화, 17F 분야별 매출비중은 풍력 53%, 플랜트 20%, 기계 20%, 조선/발전 7% - 17년 제강(잉곳) 설비 본격 가동, 18년 램프업 성공, 외형성장 및 수익성 개선 기대
	SK디앤디	532	풍력/ESS 개발/운영	- 부동산에서 풍력/ESS 프로젝트 개발/운영업체로 변신, 현재 풍력 운영 30MW, 개발 60MW, 인허가 770MW 중 - 빌딩/공장에 ESS 설치 후 운영, ESS 설치용량 목표는 17년 64MWh, 18년 580MWh로 확대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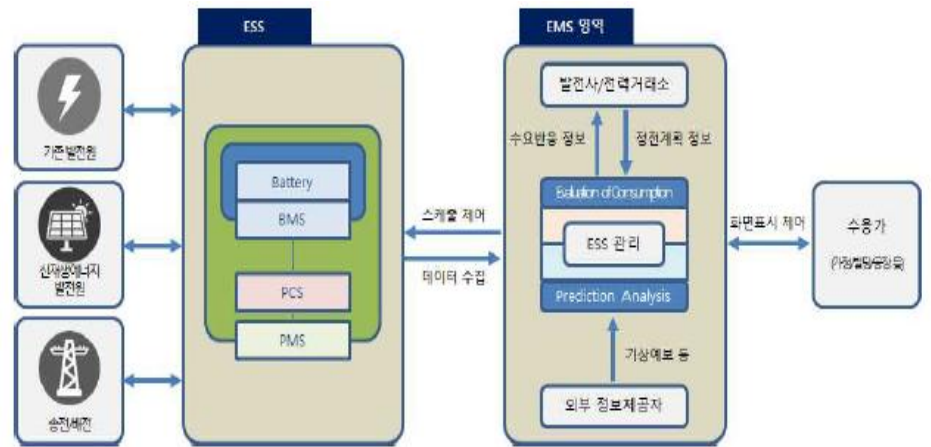
### 2차전지, 전력기기, ICT 업체 수혜 기대

유틸리티형 신재생에너지를 전력계통에 연결하기 위한 154kv 이하의 송전 및 변전설비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ESS, 송전유연시스템, 태양광과 ESS, 전기차의 직류와 교류의 전환 제어설비인 PCS, ESS의 전력제어장치인 PMS, EMS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ESS는 현재 1MWh 당 5억원으로 추정된다. 배터리 3.5억원/MWh, PCS 1억원/MWh, 전력기기/EMS/시공비 0.5억원/MWh이다. 핵심 설비인 2차전지 업체 이외에도 전력기기, ICT업체 수혜가 기대된다. 전력기기 업체는 전력기기 이외에도 PCS, PMS, EMS를 개발, 생산하고 있다. 2018년 산업용 경부하 요금의 차등조정, 2019년 주택용 요금의 계절별, 시간별 요금제 적용, 중장기 전기요금 인상 및 실시간 요금제 도입 등으로 ICT의 솔루션 고도화, O&M 수익 확대도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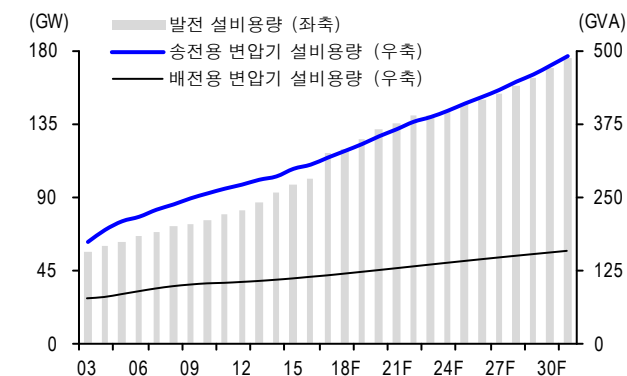
상장된 2차전지 업체로는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전력기기 업체로는 효성, LS산전, 현대일렉트릭, SI 업체로는 포스코ICT, ESS 디벨로퍼로는 SK디앤디 등이 있다.

#### ESS의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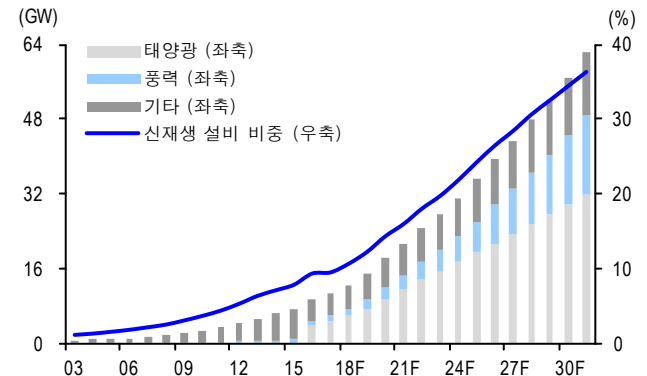
자료: NLR&C, 신한금융투자

#### 국내 발전 설비용량, 전력계통용 변압기 설비용량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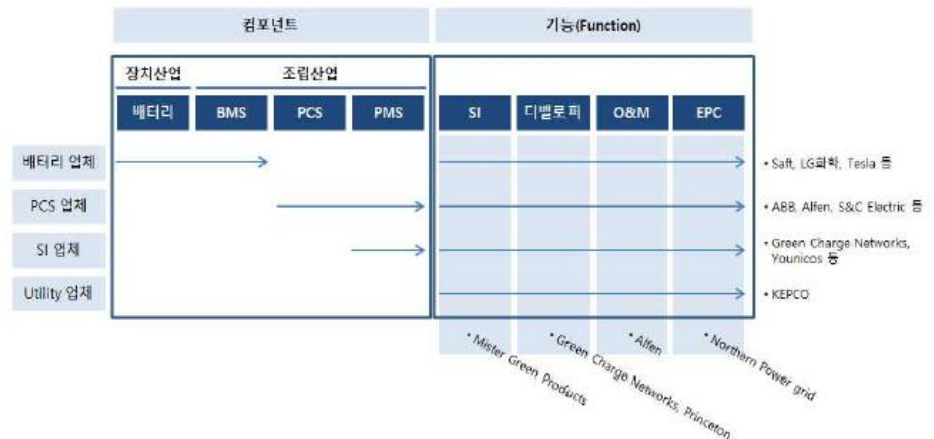
자료: 전력거래소, 신한금융투자 추정

####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비중 추이 및 전망



자료: 전력거래소, 신한금융투자 추정

## ESS 산업의 구성



자료: NI R&amp;C, 신한금융투자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수혜주 (ESS/EMS/전력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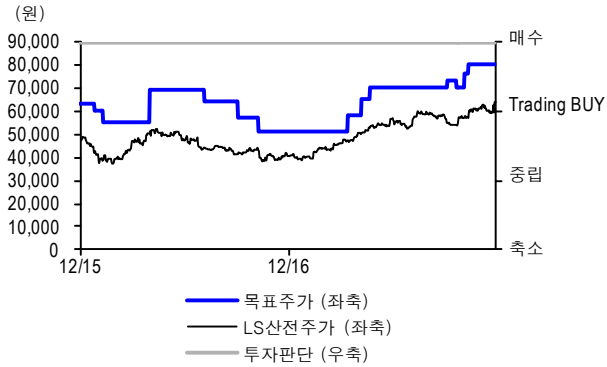
	관련주	시가총액 (십억원)	사업영역	현황
ESS	LG화학	28,060	2차전지	- 20년 중대형 전지 매출액 7.0조원(CAGR +47%) 달성 전망 - 중대형 전지 생산능력 20년 40GWh(vs. 16년 10GWh)까지 확대 예정
	SK이노베이션	18,724	2차전지	- 중대형 전지 생산능력 확대(1.1 → 3.9GWh) 진행 중, 분리막 기술 확보 - 다만 경쟁사 대비 Capa나 실적 기여도는 미미한 수준
	삼성SDI	14,303	2차전지	- 18년 중대형 전지사업 매출 1.7조원(+67% YoY), ESSS 매출 비중 6% 전망 - 중대형 전지사업 영업이익의 흑자전환 전망
	포스코캠텍	2,144	음극재 (천연흑연)	- 18년 음극재(천연흑연) 매출액 400억원(+74% YoY), 매출비중 7% 기대 - 음극재 생산 능력은 17년 8,000톤 → 18년 16,000톤(+100% YoY) 예상
	일진머티리얼즈	1,668	동박	- 16년 세계 동박 시장점유율 18%로 1위 업체, 3Q17 누계 동박 매출비중 2차전지용 54%, PCB용 37% 등 - 생산능력은 17년 1.4만톤, 18년 2.4만톤(말레이시아 1만톤), 중장기 5만톤으로 증설, 동박은 공급 부족 상황
	엘앤에프	962	양극재 (NCM)	- 18년 양극재(NCM) 매출액 3,977억원(+43% YoY), 양극재 매출비중 100% 기대 - NCM 생산 능력은 17년 15,000톤 → 18년 19,000톤(+27% YoY) 예상
	에코프로	793	양극재 (NCA/NCM)	- 18년 양극재(NCA/NCM) 매출액 5,100억원(+82% YoY), 매출비중 91% 기대 - NCA/NCM 생산 능력은 17년 11,000톤 → 18년 17,000톤(+55% YoY) 예상
EMS/ 전력기기	효성	4,758	전력기기/ESS/ PCS/EMS	- 신재생에너지 관련 송배전설비 수요 확대, PCS 기술을 토대로 국내외 ESS/EMS 사업 진출 예상 - 중공업(전력기기) 이익 기여도 확대 전망(17년 10% → 20년 18%), 풍력터빈 사업도 확대 중
	LS산전	1,941	전력기기/ESS/ PCS/EMS	- 전력기기 이외 태양광 모듈/EPC, ESS/EMS, PCS, HVDC, 전기차 부품 등 신사업 매출 확대, 수익성 개선 - 스마트공장 확대시 자동화(PLC, 인버터, 서보모터) 사업 실적 개선, 국내 매출비중 62%, 중국/아시아 18%
	현대일렉트릭	1,174	전력기기/ ESS/EMS	- 초고압 전력기기 중심에서 중저압 차단기, ESS/EMS 매출 확대 중 - 불가리아/중국/미국 생산법인 확보로 세계 설비투자 경기 회복 수혜, 국내 매출비중 52%, 중동/아시아 28% - 선박용 전력기기/회전기기내 높은 점유율 보유, 조선 경기 회복시 수혜 기대
	포스코ICT	1,203	ESS/EMS	- ESS/EMS, DR(수요반응), 전기차 충전소, 신재생에너지 등 스마트 에너지 ICT를 기반으로 EPC 매출 확대 - 공장 자동화 설비/운영 시스템 구축 경쟁력 보유로 포스코그룹 스마트공장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추정



##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추이

## LS산전(010120)



일자	투자 의견	목표 주가 (원)	괴리율 (%)	
			평균	최고/최저
2016년 01월 14일	매수	60,000	(34.6)	(31.2)
2016년 01월 29일	매수	55,000	(21.1)	(6.5)
2016년 04월 20일	매수	69,000	(29.6)	(24.2)
2016년 07월 25일	매수	64,000	(32.1)	(29.8)
2016년 09월 22일	매수	57,000	(25.0)	(22.7)
2016년 10월 28일	매수	51,000	(18.1)	(6.6)
2017년 04월 03일	매수	58,000	(15.7)	(12.8)
2017년 04월 27일	매수	65,000	(19.6)	(17.7)
2017년 05월 12일	매수	70,000	(19.7)	(14.1)
2017년 09월 25일	매수	73,000	(25.5)	(24.5)
2017년 10월 11일	매수	70,000	(18.2)	(17.1)
2017년 10월 25일	매수	76,000	(23.8)	(21.2)
2017년 11월 01일	매수	80,000	-	-

주: 목표주가 괴리율 산출 기간은 6개월 기준

## Compliance Notice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 허민호 )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당사는 상기 회사(SK이노베이션)를 기초자산으로 ELS가 발행된 상태입니다.
- ◆ 당사는 상기회사(OCI, SK이노베이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식선물의 유동성 공급회사(LP)임을 고지합니다.
- ◆ 당사는 상기회사(SK이노베이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식옵션의 유동성 공급회사(LP)임을 고지합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사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
- ◆

## 투자등급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

매수	섹터	비중확대
		축소
◆ 매수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이상	◆ 비중확대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매수 비중이 높을 경우	◆ 축소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Reduce가 우세한 경우
◆ Trading BUY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 +10%	◆ 중립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중립적일 경우	
◆ 중립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 -20%	◆ 축소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Reduce가 우세한 경우	
◆ 축소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20% 이하		

## 신한금융투자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2017년 12월 15일 기준)

매수 (매수)	92.27%	Trading BUY (중립)	3.38%	중립 (중립)	4.35%	축소 (매도)	0%
---------	--------	------------------	-------	---------	-------	---------	----